

News

서민들, 돈 빌릴 곳 없어지나...금융권 '대출 경색'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대출금리 1.0%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조 1,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8조 1,000억원 감소...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 인상 불가피에 가계대출 대폭 둔화 예상
시중은행들, 유동성 모으고 있어... 아직 주담대로 번지지 않았으나 PF, 인수금융 등 통상 나가던 대출들 중단... 영국에서도 주요 은행들, 리스크 관리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은행권 4%금리 대출, 9년4개월 만에 '비중 1위'

아시아경제

지난 7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수준별 여신비중으로 4~5% 미만으로 빌린 차주가 44.7%로 가장 많아.. 전월비 15.1%p 증가... 5%대 대출도 6.9%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반면 3~4%미만 대출은 전월비 17.3%p 감소... 한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쫓아가면 연말에는 7~8%, 내년에는 10%대 금리 대출 비중도 볼 수 있을 것

4분기 은행점포 24곳 통폐합... '공동점포' 대안될까

뉴스1

5대 은행,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24곳의 점포 문 닫기로... 농협은행이 13곳, 하나은행 4곳, 우리은행 3곳, 신한과 국민은행이 각각 2곳
디지털화와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업무 비중 크게 늘며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위치 점포들 중심으로 빠르게 몸집 줄이는 중

삼성·현대·우리 '거물' 빠진 카드사 오픈페이...반쪽 동맹 '동상이몽'

데일리안

5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오픈페이, 내달 말에서 오는 11월 중 오픈 예정... 간편결제 시장 확대되는 중 빅테크사들이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 키우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다만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는 참여하지 않기로... 현대카드는 올해 말 도입 예정 확실히 된 애플페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우리카드는 독자 가맹점 시스템 구축 예정

골프族 잡아라...보험업계, 골프보험 출시 줄줄이

이코노믹리뷰

보험업계, 골프 유저들을 위한 보험 상품 증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오잘공 골프보험' 선보여... 보장확대 및 홀인원비용, 골프용품손해 관련 보장도 확대
한화손보, CM전용 상품으로 월 2,000~3,000원 수준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상품 출시... 다만 골프보험 자체만으로 수익 창출 기대보다는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역할

올 여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1년 만에 7~8배 증가

경향신문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 8월 기준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47,7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 올 7월에는 전년도의 8.2배 증가한 55,948명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이번 달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전년대비 최대 6배 이상 많아... 코로나19 영향력 감소로 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정부 5조원 수혈로 급한 불 꺾지만...증권사 '유동성 대란' 우려 여전

MTN

정부와 한국은행, 국고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5조원 유동성 공급하기로 결정... 정부 대책 발표에 국고채10년물 금리는 상승폭 절반 반납한 채 마감
이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차환 발행 마감 앞둔 증권사들도 한숨 돌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경기침체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높아 우려는 여전히 잔존

'개미지갑' 녹이는 ELS 녹인 공포...이달만 원금손실 위험 99개 '경충'

이투데이

미래에셋증권, 9월 들어 총 20개의 ELS가 원금손실위험 발생했다고 공지... 지수연계형 HSCEI 11개, 종목연계형에서는 엔비디아 5개, 네이버 2개, AMD 2개 등
NH투자증권, 9월 기준 15개 ELS가 손실구간 진입했다고 공지... 국내외 주요 지수 및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 나타낸 여파... 발행잔액은 9월 41조 6,122억원 기록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